

미국 관세에 3분기 수출경기 위축 가전·자동차 ‘부진’, 반도체 ‘호조’

무협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EBSI 96.3, 3분기 연속 기준치하회
15품목 중 10개 수출여건 악화 전망
반도체·선박 등 회복세 이어질 듯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3분기 국내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철강 파생제품 추가 관세 영향을 받은 가전을 비롯해 자동차 수출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의 경우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서 3분기 EBSI가 96.3을 기록해 기준치(100)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수출기업의 체감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전 분기 대비 개선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올해 EBSI는 3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기준치 아래를 기록해 체감경기 위축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분야는 가전이다. 가전의 EBSI는 52.7로, 지난 1분기(52.7), 2분기(54.0)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50대에 머물렀다.

최근 미국 정부가 가전을 철강 파생 상품에 포함시켜 50%의 합량관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87억 달러, 수입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8.3%(29억7000만 달러), 수입 5.3%(18억1000만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연간 누계는 213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 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다.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EU의 경기 둔화도 복합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역시 EBSI가 56.0에 그치며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존부터 관세 대상 품목이던 자동차 산업 역시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며 수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반면 반도체와 선박 수출경기는 개선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EBSI는 147.1로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가장 높았다.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3분기 D램 가격 상승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중심의 수출 증가세도 지속되며 선박 EBSI도 135.5를 기록했다.

항목별 전망에서도 국제물류(86.8), 수출대상국 경기(87.3), 수입국

제·통상마찰(67.1) 등 대부분이 기준치를 하회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타겟관세 부과 우려가 확대된 상황이다.

수출 기업이 꼽은 애로 요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5.0%)’, ‘환율 변동성(14.7%)’, ‘원재료 가격 상승(14.2%)’이 상위권에 올랐다. 여기에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12.7%)’도 주요 부담으로 지목됐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수출 체감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전력 품목인 반도체도 예외는 아닌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과 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하면 ‘지원금’

고용부, 월 1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신한금융, 50인 미만 기업 추가 지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과 협력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첫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첫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했다.

이번 지원금을 처음 받는 업체는 경남 양산시 소재 부원산업이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46명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

원 대상이 됐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주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건설근로자 ‘변호사 무료 상담’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달~11월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

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000명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10조 규모 성장

공정위,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 규모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해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공정위 공개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 가입자 수는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10조 3348억원이다.

이는 가입자는 전년 대비 68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업체에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와 시장감시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K-라이스벨트 지원대상국 확대 가능성”

농어촌공사, 농업 기반 확장 주력

한국농어촌공사는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사는 이 사업이 기아 문제 해소에 더해 한국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국가에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하나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30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사가 농업 쪽의 여러 ODA 사업에 대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라이스벨트 사업은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자 보급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기반정비도 같이 추진해, 분명한 효과를 보여주는 한국농업 우수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농어촌공사

다”고 했다. 또 “다만 아직 대상국 수를 늘리는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국 확대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청년농업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 지원사업 하고 있다. 또 청년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지어서 청년농들에게 임대해 지어 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청년농 없이 농업이 못 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

환경·외교부,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환경부와 외교부가 다음 달 1~3일(현지시간) 사흘간 투르크메니스탄에 ‘물산업 협력사절단’을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물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사절단은 외교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회의 회원 기업 10개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이번 사절단은 물 분야에서 민관협력 형식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파견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투르크메니스탄의 기후위기 대응 및 물 문제 해결 지원에 나선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카라쿰운하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주변 국가들과의 수자원 분쟁, 세계적으로 높은

1인당 물 사용량 등 다양한 물 관련 현안이 있다. 효율적 수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물산업 수요가 높은 국가다.

이에 설계, 건설, 수처리 등의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참여한다. 카라쿰 운하의 수질·수량 통합 측정(모니터링) 및 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을 제안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7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물산업 협력 학술회’를 열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정수·하수처리 기술, 물에너지 융합 솔루션 등 국내 물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